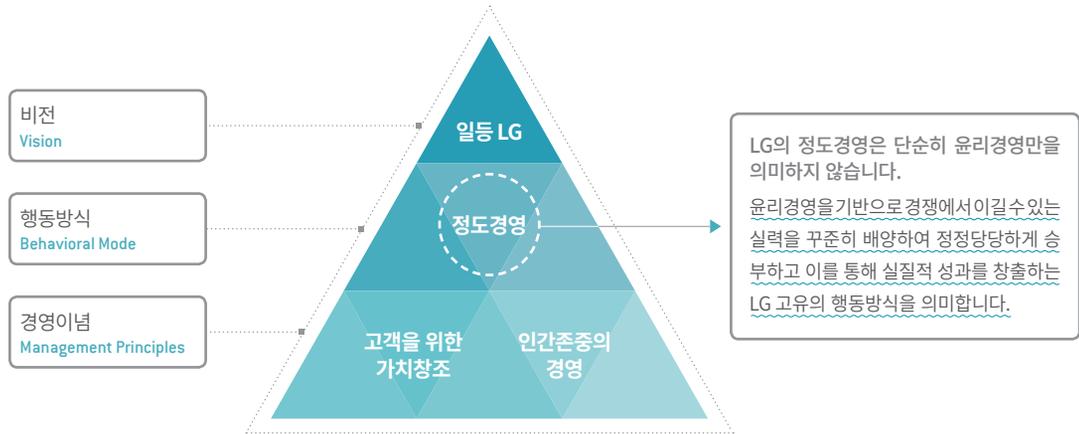


정도경영



LG생활건강은 시장선도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도경영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임직원들의 정도경영 문화수준 향상 및 사업 확대에 따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LG의 경영이념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 비전인 '일등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문화 정착 활동

LG생활건강은 정도경영 체질화를 위해 CEO 직속으로 정도경영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하의 경영진단팀은 사업부 및 부문별로 정기·기획 진단을 통해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윤리사무팀은 전사 부정비리 감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대상의 부정비리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교육 및 홍보

2015년부터 LG생활건강(자회사 포함) 부문장 이상 리더 주관의 정도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상 발생 가능한 정도경영 관련 딜레마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수 법인 임직원들에게는 LG생활건강의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기정착하기 위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현업부서 요청 시에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로 정도경영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임직원과 협력회사들에게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교육 현황

구분	대상	비고
임직원 교육	LG생활건강 전 임직원 (리더 주관)	-
	LG생활건강 전 임직원 (온라인)	-
	신규 인수 법인 임직원	5회
	팀장급 이상 (1등 품격 정도경영 교육)	7회
	화장품 사업부 BC (Beauty Consultant) 신규직	3회
협력회사 교육	음료사업부 영업직군	4회
	협력회사 대표	56개사
	협력회사 영업담당	120개사

정도경영 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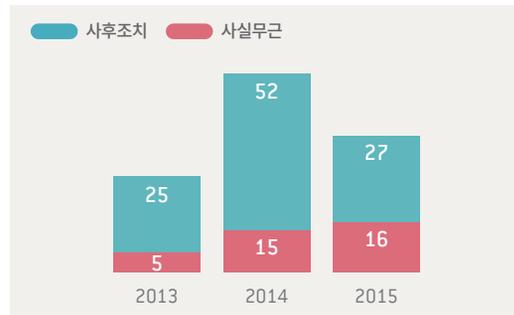
2015년부터 시행된 정도경영 평가제도는 LG생활건강 전체 임원 및 부문장 111명을 대상으로 각 조직의 정도경영 활동을 지표화하여 평가하고 다양한 사례 학습을 통해 정도경영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평가 대상을 해외 법인의 현지채용 리더들에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신문고

사이버 신문고는 LG윤리규범에 위배되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입니다. 접수된 제보는 사전·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징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도경영 교육 등의 사후조치를 취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외에도 유선,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신문고 제보 처리현황

(단위: 건)



- 2015년 중징계 73명, 경징계 9명
- LG생활건강,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더페이스샵 기준

부정비리 신고 포상제도

부정비리 신고 포상제도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가치를 훼손하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정비리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 리스크 예방

LG생활건강은 본사를 중심으로 각 해외법인에 걸쳐, 전사적으로 리스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들이 협업하여 정도경영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개선 TF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및 신규법인 지원체계 구축

경쟁력 진단을 통해 본사와 해외법인간 협업 촉진을 위한 평가제도 보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법인의 전반적인 리

스크 관리 방안 수립과 경영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법인의 조기 안정화 및 경영관리 역량 향상, LG생활건강 유관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업무공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기·기획 진단에서 도출된 이슈들은 진단이행도 시스템에 진단이행 과제로 등록하여 사후조치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정도경영 인프라 강화

8개 해외 법인에 정도경영 담당자를 현지채용하여 자체적인 정도경영 실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개 법인(중국, 대만, 일본 2개 법인) 담당자를 본사로 초청하여 해외 사업장 내 정도경영 이슈 사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외법인에서 자발적으로 정도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체 해외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료사업부 부정·비리 근절

음료사업부는 영업사원이 거래선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급하는 영업형태로 인해 생활용품 및 화장품 사업과 비교하여 징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부 내 상시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하고 정도경영부문과 협업하여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2차례 워크숍을 통해 부정비리에 대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가상계좌 수급 확대 및 ERP 시스템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사 품질 사고 예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품질 리스크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LG생활건강 및 자회사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 진단을 실시하였고 후속조치로 품질관리 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공청회 실시 및 유관부서(품질경영·인사·법무) 검토를 거쳐 전사 품질 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가이드를 수립 하였습니다.

내부감사규정 보완

전사적 부정비리 조사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감사규정의 일부 항목을 보완 및 추가하고, 이를 토대로 LG생활건강의 종속지분율이 51%이상인 7개 자회사에 내부감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